

순천 농산어촌 유학으로 '인구감소 문제' 해법 찾다

행안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15억 선정... 유학생 가족 정착지원사업 추진

순천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응모해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사업이 확정되어, 광역 지원기금 9억원을 포함해 총 15억원의 농산어촌 유학생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郡) 인구감소 지정 지역이 선정됐다. 순천시는 인구감소 지정 지역은 아니지만 시(市) 단위에서 유일하게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순천시의 교육 특화와 귀농귀촌 유입,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농촌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과 현실성 있는 투자 계획을 적극 제시해 얻은 성과다.

순천시가 선정된 유학마을 조성 사업은 전남 외 도시 학생들이 생태, 환경 체험을 위해 전남으로 전학와서 생활하는 유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주하는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10동의 규모로 귀농·귀촌, 교육, 관광, 휴양 등 복합적인 기능까지 수행할 주민 교육 특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창의적인 유학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순천시는 월동초, 낙안초, 승주초 3

개 학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하였으며 학생과 부모 304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다.

시는 3개 학교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입지 조건을 검토하여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수도권 희망 유학생과 가족을 적극 유입시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세계 최하위, 인구감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전남은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22곳 중 18곳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이다. 순천시

도·농·통합지역으로서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경제, 문화 격차가 심하고, 10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 감소가 시작되었다. 2년 전만 해도 소멸 저위험 단계였으나 2년 새 소멸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기금 90%이상 인구감소 지정 지역에 배분하고 기초지원기금은 100% 인구감소 지역이나 관심 지역에 배분한다. 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당시 저위험 단계로 기초지원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순천시는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설계된 이 기금을 도시 농촌 간 인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도농통합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순천=조순익 기자

곡성군 우리 동네 밀키트, 다음달 선보인다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시연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3일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캠핑객을 겨냥해 지역 먹거리를 보다 널리 알리고자 '우리 동네 먹거리 밀키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음식점 메뉴를 밀키트로 제작하고, 이를 지역 캠핑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곡성군 홍보대사인 강래오 셰프가 밀키트 제작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

이고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지역 음식점 10개 업체가 참여해 밀키트 요리 시범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참깨 매운탕, 석곡흑돼지 석쇠구이, 곡성깨비 정식 등 곡성 대표 음식은 물론 감자탕, 갈비탕, 해물 철판구이 등 다양한 음식점 메뉴를 밀키트로 소개했다. 앞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화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배달 시스템을 갖춰 지역 캠핑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이상석 기자

광양 매실 소비 촉진 위한 상생마케팅 후원금 전달

광양시는 매실 수확철을 맞아 광양 매실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일 농협유동 양재전에서 실시된 '매실 상생마케팅'에서 후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시행되는 '매실 상생마케팅'은 생산자는 제값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으로, 매실 최대 생산지인 광양시를 비롯해 순천시, 하동군과 CJ제일제당 등이 공동으로 조성한 후원금으로 매실특별판매전을 진행한다.

시는 이날 행사에 광양시연립사업단, 광양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매실 소비 촉진 특례를 위해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후원금은 매실 특별매대 운영과 매실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에 사용된다.

할인 행사는 광양 유기농 매실을 포함한 매실 7만2500박스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kg, 10kg를 박스당 2천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김재신 매실원예과장은 "매실 판촉행사를 통해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매실농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광양매실을 널리 알리고 매실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 관내 주요 사업장 점검... 새로운 비전 제시

실과장 정책토론회에서 전반적인 군정 수행 상황 점검 준비 당부

구례군이 민선 8기를 출범을 위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김순호 군수는 7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대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가뭄피해에 따른 대책 수립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

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정책 등을 반영한 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준공이 완료된 사업장을 포함하여 미비한 점을 살피고 문제점 발견 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빈틈없는 사업을 추진 할 방침이다.

해당 현장 방문은 6월 중 실시하여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으로 군정을 살피며 탄력 있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김순호 군수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라"며 "현장 점검 후 발생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보성군 '보성읍 악취탈취제 시범사업' 추진

보성군은 악취 취약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악취 배출사업장이 집중 분포돼 있는 보성읍 악취 저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악취탈취제 살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6월 7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실시한다. 주요 살포 지는 보성읍 내 악취 발생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퇴비제조시설), 돈사 등 축산시설 주변 등

이다. 악취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 친환경 탈취제를 중점 살포할 계획이다.

보성군에서는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민간점검원 사업장 순찰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축산농가 악취 저감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위, 캘리그래피 작품전시회

이달말까지 주민자치센터서 작품 40여 점 전시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붓끝으로 전하는 행복'을 주제로 캘리그래피 작품 42점을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회는 청림(淸林) 허영미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으로써 지난 5월 30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된다.

'캘리그래피 교실'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하는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전시회 개최를 통해 캘

리그래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미 캘리그래피 강사는 "하얀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고, 뿔뿔이 뿜어내는 순간순간이 행복이고 사랑이다"며, "행복의 기운이 작품을 통해 발산되어 보는 이의 내면에도 따뜻함이 차오르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지원한 이정식 중마동장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글씨들을 보니, 작품전시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고흥 역사·문화가 담긴 유물 찾습니다"

내달 11~15 신청 접수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다양한 학술자료 수집 및 전시유물 확보하고자,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갖춘 유물을 공개 구입 한다고 밝혔다.

구입대상은 일품 분청사기, 고흥의 역사 또는 인물관련 전적류 및 고문서 등이며, 1인당 20점 이내로 구입이 제한된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오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실시하고, 3차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박물관 소장유물과 중복되거나 희소성이 결여된 자료,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 모조품, 복제품, 도난품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유물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및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를 구입하여, 다양한 학술자료 수집 및 전시유물 확보를 통해 박물관 관람객과 지역사회의 문화향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최혁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고성